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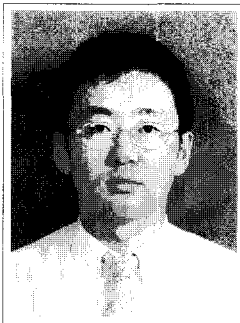
기관별 원자력 인력 양성 현황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최 영 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교육운영개발실장

#### 개 요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유가 불안정 등으로 세계 각국이 친환경적인 원자력 에너지에 다시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저탄소-녹색 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안전 규제 기술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러한 국제 에너지 정세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정보, 지식과 경험을 한층 더 축적 배양하여 역량을 고도화하고, 이를 국제 사회에 전수하기 위해 기존의 원자력안전학교를 확대 개편하여 국제원자력안전학교를 설립(2008. 1.) 하였다.

국제원자력안전학교(연건평 2738.2m<sup>2</sup>, 지하 1층, 지상 3층)는 원내 직원을 위한 전문 과정과 해외 규제자를 위한 특별 과정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 대상 안전 체험 학습 등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국민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 연계 및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 대상과 교과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교수 요원과 첨단 교육 기자재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 전문 교육 기관으로 육성 발전중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안전 규제 요원에 대한 다양한 국제 교육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국제 원자력 안전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규제 기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아주대 기계공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석사,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박사  
한국에너지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입사(1990), APR-1400 표준설계인가 안전심사 사업책임자(PM), 신고리 1,2호기 건설허가심사 사업책임자(PM), 교육운영개발실장(2008~ )

〈표 1〉 2009년도 방사선 방호 교육 과정 실시 현황  
(2009년 말 현재)

과 정 명	교육 실시 일자	대 상	인원(명)
방사선 방호 교육	2. 16	방사선 작업 종사자	266

안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국제원자력안전학교는 2005년 4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재 교육 기관이자 방사능 방재 교육 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어 원자력 시설 관련 방재 요원의 교육 시행 및 방재 교육 기관 검사 업무 등을 수행중이다.

2009년에 실시한 국제원자력안전학교의 주요 교육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 안전 국내 교육·훈련 현황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원전은 20기, 건설중이거나 건설 계획이 확정된 원전은 8기다. 여기에 2008년 8월에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의결한 전체 전력 설비 용량의 26% 수준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향후 20년 내에 원전 11기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규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증가와 함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도 매년 약 1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원자력 사업자 및 규제 기관은 증가하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의 사전 예방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 규제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기술 발전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 규제 기술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관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 가동 원자력발전소의 안

〈표 2〉 2009년도 방사능 방재 교육 과정 실시 현황  
(2009년 말 현재)

과 정 명	교육 실시 일자	대 상	인원(명)
방사능 방재 교육	4. 27 ~ 12. 10 (동 기간 중에 6차례 실시)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직원 원전 지역 지자체 공무원	270

전성 확보, 미래형 원자력발전소의 규제 방안 등 새로운 안전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규제 전문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규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규제 인력 및 전문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원자력안전학교에서 2009년도에 실시한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 요원 대상 주요 교육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방사선 방호 교육

「원자력법」 제105조(교육 훈련)에 따라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방사선 방호 교육 과정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방사선 방호 관련 업무 능력을 숙지하고 유지하기 위한 법정 교육으로, 2009년도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266명이 이수하였다.

#### 2. 방사능 방재 교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 36조(방사능 방재 교육)에 따라 방사능 방재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방사능 재난 발생시 방사선으로부터 주민 보호와 사고 완화를 위해 사전에 계획된 방재 조직으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교육으로, 2009년도에는 총 6차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및 원전 지역 지자체 공무원 270 명이 이수하였다.



〈표 3〉 2009년도 원자력 규제 검사원 교육 실시 현황 (2009년 말 현재)

구분	과정명	교육일자	인원
규제 검사원 교육과정	신규 기본 공통 과정	2.23~2.24	17
	보수 공통 과정	2.25	43
	선택(시설 관리/품질 보증) 과정	2.26	21
	선택(방사선/방사능 방재) 과정	2.26	22
	보수 공통 과정	12.22	12
	선택(시설 관리/품질 보증) 과정	12.23	7
	선택(방사선/방사능 방재) 과정	12.23	5

### 3. 원자력 규제 검사원 교육

원자력 규제 검사원 교육은 원자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규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해당 분야의 기량, 태도 및 전문 지식과 검사 능력을 제고하고, 검사원증 발급 및 효력 유지에 필요한 법정 교육이며, 총 7개 과정에 127명이 이수하였다.

### 4. 규제 기술 전문 과정

규제 기술 전문 과정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 심사, 검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각 전문 분야별 지식의 심층적 이해와 실무 및 최신 규제 동향을 습득하도록 하여 규제 기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설하며, 총 13개 과정에 513명이 이수하였다.

## 원자력 안전 국제 교육·훈련 현황

### 1. 원자력 후발국 대상 원자력 안전 국제 교육

원자력 선진국들은 그동안 주축하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구로만 보유하거나 방사성 물질의 이용만 활성화되어 있던 아시아 지역 여러 국가들은 국가 에너지 계획에 원자력발전소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등 원자력 르네상스로 불릴 정도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23일 확대·개편되어 발족한 「국제원자력안전학교」는 역내 및 글로벌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향상 및 지속적인 원자력 안전 기반 구축·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국제적 신뢰감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30여 년 간 축적된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규제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원전 도입에 선행하여 원자력 안전 규제 인프라와 규제 기술력을 갖춰야 하는 개도국에게 우리의 선진 기술력을 전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개도국의 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그 분야에 맞는 영문 교재를 개발하는 등 원자력 개도국에 대한 원자력 안전 및 규제 교육 훈련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노력은 IAEA 등 국제 기구와의 협력, 또는 국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협력 범위는 점차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국제원자력안전학교는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넓히기에 힘썼고, 특히 국제원자력기구(이후 IAEA)와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보다 활발한 협력 확대가 예상된다.

2009년 10월 국제원자력안전학교는 IAEA와 공동으로 안전 규제자 과정 및 원전 건설 단계 현장 OJT 과정을 개최하였다.

먼저 1주일간 IAEA 회원국 중 원전 도입 예상국 11개국의 안전 규제 요원 18명에게 원전 도입시 요구되는 안전 지침과 각국의 이행 현황 및 한국의 현황, 법령 및 규제 체계, 규제 기관의 조직, 안전성 평가 등의 과목을 다루는 안전 규제자 과정이 실시되었다.

안전 규제자 과정에 연이어 건설 현장 OJT 과정이 2주간 개최되었는데, 이 과정에는 12개국에서 22명

〈표 4〉 2009년도 규제 기술 전문 과정 교육 실시 현황

(2009년 말 현재)

구분	과정명	교육일자	인원
규제 기술 전문 과정	ITER 사업 참여자를 위한 품질 보증 교육 과정	1.29~1.30	69
	방사성동위원소 전문 교육 과정(I)	3.23	51
	원전 건설 단계별 현장 교육(2회) - 강의실 교육 + 현장 OJT	3.30~4.10	30
	방사성동위원소 전문 교육 과정(II)	5.28~5.29	36
	가압경수로 원전 계통 전문 교육 과정	6.3~6.5	81
	방사성동위원소 전문 교육 과정(III)	6.13	18
	품질 보증 전문 교육 과정(일반-1차)	6.15~6.16	36
	방사선 비상 대응 전문 교육 과정	9.14	47
	원전 경년열화 전문 교육 과정	11.11~11.12	35
	품질 보증 전문 교육 과정(일반-2차)	11.17~11.18	33
	규제 검증 안전 해석 코드 사용자 전문 과정	11.25~11.26	33
	중대 사고 전문 교육 과정	12.1~12.2	30
	방사선 안전 해석 코드(PHITS) 사용자 전문 교육 과정	12.10~12.11	14

의 규제 요원이 참여하였고, 한국형 원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훈련 과정이 되었다.

OJT 과정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역사, 규제 검사 관련 원자력법 및 규정, 안전 검사 일반, 품질 보증 검사, 폐기물 관리, 원전 계통별 시설 검사 및 성능 검사, 품질 보증 실습 등의 강의실 교육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 및 원자력 기기 생산업체 등의 견학이 제공되었다.

2009년 9월 국제원자력안전학교는 IAEA 공동으로 원자력 안전 기본 전문 훈련과정을 개최하였다. 이 훈련 과정은 아시아원자력안전네트워크(이후 ANSN) 및 IAEA 회원국의 규제 요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ANSN 5개 회원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및 중동 국가(요르단, 이집트, 예멘, 파키스탄)에서 15명의 훈련생이 참가하여 2주간 진행되었다. 원자력 안전 및 규제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 등에 대한 전수가 이루어졌다.

또한 ANSN 사업과의 협력 일환으로 방사성폐기물 주제별 그룹 및 안전 해석 주제별 그룹과 2개의 훈련 과정을 2009년 7월 및 2009년 11월에 각각 실시하였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안전성 평가 훈련 과정은 13개국 22명이 참석하여 IAEA 안전 요건, 안전 지침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자리였고, 안전 해석 주제별 그룹 훈련 과정은 4개국 6명의 규제 요원이 참석하여 원전의 설계 및 운전, 안전 해석 코드 등 강의 및 실습의 내용으로 과정이 실시되었다.

국제원자력안전학교는 원전 도입 예상 국가의 교육 수요와 원전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전문 과정을 개발하여 2009년 8월에 실시하였다.

11개국 19명의 안전 및 규제 관련 요원이 참석하여 원전 계통 및 안전 해석에 관한 강의실 교육과 안전 해석에 대한 실습,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 견학 등의 과목으로 훈련을 받았다. 훈련생들은 한국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 규제 모델이 매우 우수하여 자신들의 규제 활동에 적절히 적용할 것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또한 2009년도 맞춤형 과정에 사용하고자 원전 계통에 관한 영문 교재를 개발하여 강의실 교육에서 활용하였다. 2009년 맞춤형 전문 과정은, 주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국제 교육이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중동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신인도 향상에 큰 영향을 끼쳤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에 기여한 바가 크다.

2009년에는 국제 협력을 통한 국제 교육이 더욱 확대되었다. 인도네시아 규제 요원 OJT 과정, 베트남 안전 규제 관련 요원에 대한 2회의 자문 과정, 일

**특집****원자력 인력****<표 5> 2009년도 국제 교육 과정 실시 현황**

(2009년 말 현재)

과정명	교육일자	대상	인원(명)
일본 JNES 원전 건설 단계 현장 교육	3.30~ 4.10	일본 JNES	4명
인니 BAPETEN OJT	5.4~5.15	인도네시아 BAPETEN	12명
IAEA ANSN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성 평가 훈련 과정	7.13~ 7.17	일본,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등 11개국	16명
베트남 원자력법 시행령 제정 관련 Consultation Course	7.20~ 7.24	베트남 VAEC 1명, VARANS 2명, 산업통상부 1명	4명
맞춤식 전문 과정	8.17~8.28	11개국 (케냐,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리트 등)	19명
BPTC(기본 전문 훈련 과정)	9.14~9.25	8개국 (이집트, 예멘, 요르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15명
안전 규제자 과정	10.12~10.16	11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집트, 요르단 등)	18명
원전 건설 단계 현장 OJT	10.19~10.30	12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집트, 요르단 등)	22명
IAEA Fellowship 훈련생 과정	10.8~11.28	인도네시아 BAPETEN	2명
IAEA/ANSN Training Course for Safety Analysis Topical Group	11.2~11.6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	6명
베트남 원자력 안전 기반 구축 컨설팅 과정	11.9~11.13	베트남 VARANS 4명 및 과기부 2명	6명

본 규제 요원에 대한 원전 건설 단계별 현장 OJT 과정을 실시하였고, 각국이 요청하는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맞춤식으로 실시함으로써 맞춤형 교육의 다변화를 이루었다.

각국의 상황을 반영한 이러한 맞춤형 훈련 과정을 지속 개발, 운영함으로써 각국의 호응을 얻고, 안전 규제 분야의 교육 역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게 되었다.

IAEA의 기술 협력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펠로우쉽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별 교육 훈련은 2009년 2명의 훈련생만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훈련을 받았다. 전년에 비해 개인별 교육 훈련생 수가 감소한 것은, 집체 국제 교육 과정의 횟수가 대폭 증가하여 개인별 훈련생 수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09년도에는 인도네시아 규제 요원에 대해 강의 실 교육을 포함한 실무 부서에서의 OJT, 토론 및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 훈련 프로그램과 훈련생의 전문 분야에 대한 개인별 훈련이 7주간 제공되었다.

2009년도 국제원자력안전학교는 원전 도입이 예

상되는 국가의 수요 분석 및 대상 국가의 요청 분야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훈련 과정 개발에 힘쓴 결과 훈련 과정 개최 수와 참가한 훈련생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세계 최초의 원전 건설 현장 OJT 과정 등의 국제 교육 과정을 통해 세계 각국의 규제 요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관의 대외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한국형 원자력 수출에 가장 필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국제원자력안전학교에서 2009년도에 수행한 국제 교육 현황은 <표 5>와 같다.

## 2. 국제원자력안전석사 과정 개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후발국의 원자력 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9년 3월 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제원자력안전 석사 과정을 개설하였다.

〈표 6〉 2009년도 원자력 체험 사업 실시 현황

(2009년 말 현재)

구분	과정명	교육일자	대상	인원(명)
원자력 안전 체험 과정	과학·문화와 함께 하는 원자력 안전 체험 학습	1월~12월 (연중)	학생/학부모, 교사, 각종 사회단체, 군인, 경찰, 택시기사 및 소외 계층 등	5,446 (80회 실시)
원자력 안전 교원 연수 과정	서울 지역 원자력 안전 교원 연수	7.28~7.30	서울 지역 교사	80
	대전 지역 원자력 안전 교원 연수	8.4~8.6	대전 지역 교사	40
	충남·북 지역 원자력 안전 교원 연수	8.11~8.13	충남·북 지역 교사	42
	울산 지역 원자력 안전 교원 연수	8.25~8.27	울산 지역 교사	36

이 과정은 원전 도입이 예상되는 동남아, 중동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원자력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나라의 미래 원자력 지도자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10여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1년 6개월 동안 원자력 안전에 관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한국과학기술원은 원자력에 관한 기본 이론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안전 및 규제에 관한 실무를 전수한다.

두 기관은 '과학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캠퍼스 공유, 도서관·연구 시설·기숙사 등을 수월하게 공동 활용할 수 있어 인력 양성을 위한 학-연협동 모델의 최적 조건을 갖고 있다.

2009년 가을학기부터 시작한 제1기 국제원자력안전석사 과정에는 13개국에서 28명이 입학지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은 학생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선발 기준에 따라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등 6개국 7명의 입학생을 선발하였다.

입학생들은 학기 시작 전 한 달 동안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으며, 9월 3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입학식을 갖고 석사 과정을 시작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 성취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개인별

멘토십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이 석사 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원자력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안전 규제에 관한 경험을 얻게 되고, 석사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졸업 후 모국으로 돌아가 안전 규제 인프라를 주도적으로 기획, 설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이들과의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원전 후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원전 수출국으로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책임 완수에 기여할 것이다.

**원자력 안전 체험 학습 운영**  
- 원자력 안전 대국민 이해 제고 사업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과 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저탄소-녹색성장'의 주축인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원자력 안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2005년부터 매년 원자력 안전 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시행하던 체험 학습을 2009년도에는 각 교육청과 연계하여 전국으로 확대하여 총 84회 실시하였으며, 학생·학부모 및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의 파급 효과가 큰 사



회 단체, 경찰, 군인, 택시 기사 등으로 교육 대상을 넓혀 시행하였다.

또한 사회 공헌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 아동들에 대한 체험 학습 참여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체험 학습은 1박2일을 기본으로 하고, 참여자의 여건에 따라 교육 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였는데, 2009년도 교육 인원은 교원 연수 인원을 포함하여 총 5,644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270% 향상된 실적이다. 2010년도에도 교육 인원 및 대상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원 연수를 최초로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여름방학 중에 4회에 걸쳐 실시한 교원 연수에는 서울, 울산, 대전 및 충남·북 교사 198명이 참가하였으며, 2박3일 동안 20시간 이상의 원자력 관련 강의 및 체험에 참여하였다.

원자력 안전 체험 학습 과정은 원자력 관련 강의실 교육과 현장 견학 및 문화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실 교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원자력 안전에 전반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시설과 장비를 통해 실습도 이루어진다.

현장 견학은 원자력발전소(월성) 견학을 기본으로 하며, 참여자들이 1박2일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과학과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참여자의 선택에 의해 체험할 수 있는 과학 관련 기관은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주요 교육 및 연구 기관(KAIST 등), 박물관(지질박물관 등), 중앙과학관, 한전원자력연료(주) 및 포항공대 가속기연구소 등이며, 역사·문화 체험 장소로는 공주·부여 역사 유적지와 국내 최고 한옥마을인 포항 양동마을 등이 있다.

또한, 학생의 경우는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미있게 원자력을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맺음말

‘지식 에너지’라고 불릴 정도로 전문성이 집약된 원자력 이용·확대의 전제 조건은 안전성 확보와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이며, 원자력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의 자질 향상뿐만 아니라 안전 규제 요원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국제 협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교육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후진국간 교육 협력을 독려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원자력 안전 규제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30 여년간 축적한 규제 기술과 경험을 더욱 배양하기 위해 「원자력안전학교」를 개설한 바 있고, 국제 사회에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전파하기 위하여 IAEA와 협력하여 세계 최초의 「국제원자력안전학교」를 개설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원자력에 관해 국제 사회로부터 수혜를 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규제 기술과 경험을 공여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국제원자력안전학교는 원내 직원들이 세계적 규제자(World-class Regulator)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기구나 외국 원자력 규제 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국제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교육의 분야, 범위 및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와 공감대 형성의 일환으로 학생, 학부모 및 교사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자력 안전 체험 학습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원자력안전학교가 원자력 안전 전문 교육 훈련의 세계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원자력 안전에 기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세계적인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진 교육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